

제 목	국 문	군입영자에서 B형 간염 발생규모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이에 미치는 영향		
	영 문	The incidence rate of hepatitis B in military service and the influence of asymptomatic HBsAg carriers on the incidenc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록권 ¹⁾ , 서 일 ²⁾ , 한광협 ²⁾ , 남정모 ²⁾ 1)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 문	Rock Kwon Kim ¹⁾ , Il Suh ²⁾ , Kwang Hyub Han ²⁾ Chung Mo Nam ²⁾ 1)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 2)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역 학	발 표 자	김록권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 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군입영자를 대상으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신검기준의 변화에 따른 입영연도별 코호트를 구성한 뒤 각각 추적조사하여 B형 간염 발생률을 알아보고 또한 무증상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B형 간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2. 연구 방법

1991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한 238,595명 가운데 현역 병으로 확정된 223,27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입영시기에 따라 코호트를 정하였다. 91년과 92년 코호트는 간염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입영한 코호트였고, 93년 코호트는 HBsAg 음성자로만 구성되었으며 94년 코호트는 93년 코호트에 비해 HBsAg 양성자를 포함한 코호트였다. 입영자 전원에 대한 B형 간염 혈청학적 검사 및 간기능 검사는 적십자 혈액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HBsAg은 Enzyme Immuno Assay법으로 검사하였고, 간기능검사는 SGPT를 측정하였으며 45IU 이하를 정상치로 간주하였다. HBsAg이 양성이면서 SGPT가 정상치보다 높더라도 임상적인 간질환의 소견이 없는 경우를 무증상 보유자로 정의하였고, HBsAg 유무에 관계없이 임상적인 간질환의 증상이 있으면서 SGPT가 증가된 자를 간염 환자로 정의하였다. 입영코호트별 인구 1만명당 연간 간염발생률을 계산하였고 입영기준의 변화가 있는 93년, 94년 코호트에서 HBsAg 음성자 1인당 주위에 접촉할 수 있는 양성자수를 추정하여 무증상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B형 간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3. 연구결과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군 입영 장정들에서 HBsAg 양성률은 5.5% 이었다.
- 2) 입영 코호트별 B형 간염 발생률은 간염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던 91년과 92년 코호트에서 각각 9.96명/만인년, 8.10명/만인년이었고, HBsAg 음성자로만 구성된 93년 코호트는 1.34명/만인년이었으며 HBsAg 양성자를 포함한 94년 코호트는 7.41명/만인년 이었다.
- 3) HBsAg 양성자를 포함한 94년 코호트에서 HBsAg 양성자만의 B형 간염 발생률은 99.98명/만인년으로서 음성자만의 2.25명/만인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HBsAg이 양성이면서 SGPT치가 정상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B형 간염 발생위험이 정상인보다 255배 이상 높았다.
- 4) HBsAg 음성자 주위에 접촉할 수 있는 HBsAg 양성자 수는 93년 입영 코호트가 94년 입영코호트 보다 많았고 또한 93년 입영자 수가 58,969명으로 94년의 56,832보다 많았다. 그러나 B형 간염발생률은 94년 코호트가 높으므로 따라서 HBsAg 음성자 주위에 양성자가 많더라도 임상적으로 문제가 되는 顯性 B형 간염 발생위험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4. 고찰

이 연구결과 HBsAg이 양성이면서 SGPT치가 정상보다 높은 경우에는 B형 간염에 대한 고 위험군이므로 일반적인 간질환의 증상이 없더라도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집단생활을 하더라도 HBsAg 양성인 무증상 보유자가 B형 간염 발생에 있어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으로 무증상 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불이익을 막아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